

백두산 호랑이가 전세계에서 쫓겨나고 있다고?

자료화면
출처 어디어디

수많은 전래동화에서
무서운 맹수처럼
때로는 친근한 친구처럼 등장하는 **호랑이.**





특히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
백두산 호랑이는 개체수도 많아
진짜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.

이런 호랑이 사랑에도 불구하고

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,

한반도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에서도

호랑이를 잘 볼 수 없습니다.

어찌 된 일일까요?



"대책을 세우지 않으면
10-20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"

– 주춘취안 박사 / 세계자연보호기금(WWF) 베이징 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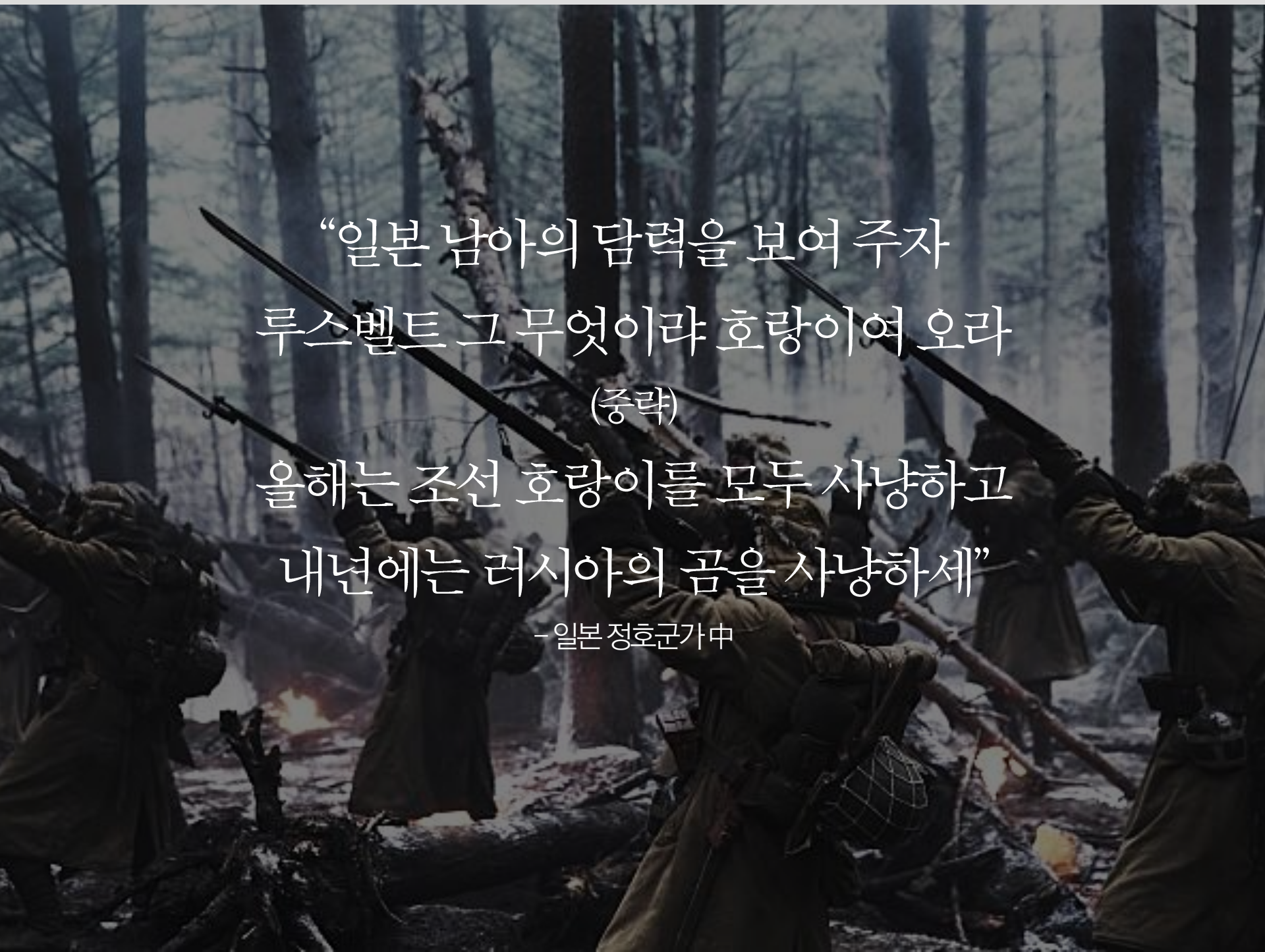


잣나무가 많았던 우리나라에는
잣을 주식으로 하는
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.

최상위 포식자인 **호랑이는**
이 잣나무 숲을 중심으로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죠.

출처 영화 <대호> 스틸컷

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,
마구잡이로 한국의 짐승을 죽이는
‘해수구제정책’이 실시됩니다.



짐승을 사살하기 위해
약 10만 명이 동원된 이 정책으로
호랑이의 씨가 말라버렸고,

그 이후 **6.25 전쟁으로 산림이 모조리 파괴돼**
'백두산 호랑이'는 한반도에서 설 곳을 잃게 됩니다.





그나마 **중국과 러시아**에서
간간히 모습을 보였지만,



무분별한 개발과 다량의 목재 수출로
서식지였던 **잣나무숲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.**

그렇게 백두산 호랑이도
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.



이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
외국에서는 잘 가꾼 산에 대해
산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
우리나라도 **한국형 산림인증제도**를 만들어
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,

산과 목재를 지속 가능하게
경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



호랑이가 사랑하는 잣나무숲의 '잣'도
비목재 임산물 1호로 지정!

잣, 버섯, 꿀 등 **산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**
제조 과정 하나하나까지
인증한다고 합니다.

"산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,
산에서 나는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
환경오염을 일으키지는 않는지,
노동 구조는 문제 없는지, **지역 일자리를 창출**하는지
이런 총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요."

–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



앞으로 산림인증 제품이 더 많아져서
많은 사람들이 숲을 되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면
‘백두산 호랑이’도 다시
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?



글·구성 김유진, 홍단비 인턴
그래픽 김태화 **도움** 권재경
기획 하현종 **제작지원** 한국임업진흥원